

섬유 제품은 제일 먼저 원사부터 차별화

◎ 수요자는 실의 정보를 알고 싶어 한다.

2008년 말부터의 세계 동시 불황(世界 同時 不況)은 일본 텍스타일 산지에 심한 피해를 주었다. 의류 제품 판매가 매우 나빠졌을 뿐만 아니라 가격 경쟁도 너무나 지나친 수준에 이르고 있다. 그래서 산지 기업들은 수주가 줄었고 결과적으로 원사 수요도 크게 줄어든 상황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일부 산지에 있는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많은 산지 기업은 지금 실(yarn)에 대한 정보(情報)를 원하고 있다. 그래서 실의 수요자인 산지 기업들이 원하는 최신 차별화 원사를 방적, 합섬, 상사 등으로 하여금 제안토록 의뢰하였다.

일본에서는 전국적으로 텍스타일 산지들이 고전하고 있는데 유력한 기업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움직임도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다. 어떤 기업은 설비에 투자하기 시작하였고 어떤 기업은 생산 품종을 대대적으로 바꿔버리려는 움직임도 있다. 그런데 그들에게 공통된 것은 “이제까지와 같은 것을 만들고 있어서는 더 이상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다. 이제까지보다도 더 차별화하여야 한다는 의식이 강해졌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주목하는 것은 원사(原絲)이다. 섬유 제품 차별화는 먼저 원사부터라는 것은 기본 중에서도 기본인데 현재 일본 섬유 산지(山地)에서는 그와 같은 기본적인 환경조차도 무너져버릴 위기를 맞고 있다. 급격하게 실의 소비량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방적·합섬·상사들의 실 판매 비즈니스도 해마다 줄어들어 왔고, 이에 따라 사람도 대폭으로 줄어들고 있다. 따라서 과거에는 부지런히 산지를 찾아가서 최신(最新) 실에 관한 정보를 갖다 주던 존재가 적어졌다고 한다. 지금 원사 수요자인 산지 기업으로부터 원사 메이커, 상사들이 제공해 주는 정보가 압도적으로 적다는 불만의 소리가 많이 들려오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 일부 방적이나 상사도 다시 산지에 적극적으로 제안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신나이가이멘(新内外綿)은 2008년부터 일본 전국 산지를 차례로 돌아다니며 실 전시회를 시작하였다.

상사에서는 이도추 상사(伊藤忠 商社)가 역시 산지에서 전시회를 개최하고 이 회사가 판매하는 오가닉 면사 ‘E.P.C’와, 유기 재배 첫해부터 오가닉 코튼(organic cotton)과 같은 수준의 가격으로 원면을 조달함으로써 농가의 유기 재배를 지원하는 프리 오가닉 코튼 프로그램(pre-organic cotton program), 무수 염색 시스템(無水 染色 system) 잉크맥스(inkmax)를 소개하였다.

산지를 지원하는 섬유 리소스 센터(纖維 Resource Center)도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이번에 오사카 섬유 리소스 센터는 이도추의 협력을 받아, 이 회사의 그룹 기업이 취급하는 차별화 원료와 기술을 산지 기업에 소개하는 합동 프레젠테이션(合同 presentation)을 실시하였다.

앞으로는 이와 같이 산지를 위해 적극적인 제안을 계속적으로 하는 소재 메이커만이 살아남을 수 있으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텍스타일 산지가 갈수록 급격하게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적이나 상사의 실 판매도 변하고 있다. 여기서는 2개 기업이 개성적인 실 판매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새 시대의 실 판매 사업을 소개한다.

◎ 신나이가이멘 - 산지 순회 전시회로 철저하게 다품종 소 로트 판매

신나이가이멘은 이색 연사(異色 撚絲 grandrelle yarn) 등의 팬시 안(fancy yarn)이나 정제 셀룰로스 섬유(精製 cellulose 纖維) 텐셀(Tencel) 방적사에 대하여 자신을 갖고 있다. 신나이가이멘은 실 공급이 신속한 ‘빠른 실’이라는 독자적인 판매 시스템으로 다 품종 소 로트 판매(多 品種 小 lot 販賣)나, 2008년부터 시작한 산지 순회 전시회(產地 巡廻 展示會)를 개최하는 등의 독자적인 실 판매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 회사는 2008년부터 전국 텍스타일 산지에서 순회 전시회를 여는 등, 어디까지나 산지 기업과 함께 공존한다는 것을 중요시한 실 판매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회사가 중점적으로 제안하고 있는 차별화 원사는 ‘SR 이색 연사(杓絲 : Grandrelle Yarn), 파티셀, 리오 실버(Lyo Silver)’ 등이다.

SR 이색 연사는 이색 연사의 2번째 소재로서, 실이 길이 방향으로 색조(색조 : 빛깔의 濃淡·強弱·明暗 등의 程度)가 변하는, 거칠게 뽑은 실이다. 색조나 실의 표정을 고상하게 만든 외에도 미이용면(未利用綿 : 落綿)을 사용함으로써 환경에도 도움이 되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5가지 색을 스톡(stock)하고 있어 최소 로트(最小 lot)인 1케이스(case)로부터 판매가 가능하다.

넵사에 텐셀 100%를 사용하는 것은 드물지만 파티셀은 텐셀 100%를 사용한 컬러 넵사이다. 유저(user) 중에 한사람이 파티셀을 사용한 생지를 프리미어 비전(premiere vision)에 출품하였는데 주목을 받았다. 텐셀 사용으로 인하여 넵사의 약점인 넵이 잘 떨어지는 것이 적어진 것도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리오 실버는 독일의 스마트 파이버사가 생산하는 또 하나의 리오셀인 ‘시셀’ 원면을 이용한 것이다. 시셀 원면에 대하여 일본에서는 신나이가이멘이 독점 수입권(獨占 輸入權)을 갖고 있다. 리오 실버는 은 이온 배합(銀 ion 配合)으로 항균 방취 기능(抗菌 防臭 機能)을 갖고 있다. 표백 가공이나 염색 공정을 거처도 함유하고 있는 은이 변색한다든지 하지 않는다. 최근에는 타월의 파일(pile) 용도 등에 채용되고 있다.

그 외에도 최근에는 순은 라메 가공 이색 연사(純銀 lame 加工 異色 撚絲)를 개발하는 등 적극적으로 실을 개발하는 것이 이 회사의 기본 전략이다.

◎ 모리린 - 유력한 소재를 융합한 차별화 실 개발로 정평

모리린(Moririn) 상사의 여러 가지 차별화 실을 개발하는데 확고한 평가를 받고 있는 원사 그룹(原絲 group)은, 유저인 산지 기업의 요망을 집약함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제품 부문과의 제휴로 제품을 구입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섬유 공정의 상류(上流 : upper stream) 및 하류(下流 : down stream)로부터의 니즈(needs)를 피드 백(feed back)하여 새로운 실을 개발하는 데에 반영하고 있다.

그와 같은 새로운 실 개발은 메이커가 다른 유력한 차별화 소재를 짜 맞추어 새로운 소재를 만들어 내는 등 상사(商社) 아니고는 보일 수 없는 기획력과 유연성이 특징이다.

예를 들자면 에코를 내세운 ‘에코셀(Ecocel)’은 아사히 가세히(旭化成) 섬유의 큐프라(Cupra) ‘뎀베르크(Bemberg)’와 리사이클(recycle) 폴리에스터 섬유 ‘에코 센서(Eco sensor)’,

이외에도 데이진 파이버(帝人 fiber)의 리사이클 폴리에스터 섬유인 ‘에코 펠트(Ecopet)’를 이 회사가 효과적으로 융합시켜 개발한 소재이다.

다른 한편으로 이 회사에서는 2009년기부터 원사 그룹과 OEM 비즈니스를 메인으로 하는 니트 머티리얼 그룹(knit material group)의 제후를 강화하고 있다. 그럼으로써 지금보다도 더 최첨단 제품 정보를 원사 그룹에게 피드 백(feed back)할 수가 있다. 더욱이 니트 머티리얼 그룹은 제품 OEM 이외에 소재도 개발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룹 영역을 넘는 소재 개발도 많아질 것 같다.

모리린의 대표적인 원사 그룹을 소개한다.

◦ BOHEMIAN -

- 모달(modal), 마이크로(micro) 모달을 사용한 TOP melange yarn
- 모달 100% 30's-40's 16개 색 展開
- 마이크로 모달 100% 60's 4개 색 展開
- 마이크로 모달 50% Supima혼방 60's 4개 색 展開

◦ TURFAN ROAD -

- 신장면(新疆綿) 툴판을 사용한 Top melange yarn
- 코튼 100% 30's-40's-60's 24개 색 展開
- 실크 20%혼방·캐시미어 10% 혼방

◦ Cell Series/JOY CEL -

- 부드럽고 내구성·pilling성이 우수한 Celtis-S
- fine wool과의 blend에 의한 고상한 Celwool
- 트리아세테이트/소아론의 고급감이 있는 Celmode
- 극세한 cellulose 최고봉의 價値觀을 나타내는 JOY CEL

- recycle polyester 복합 fashion ECO소재 ecocell
- Pro Viscose -
 - 렌징사(社)의 NEW 비스코스
 - 비스코스와 리오셀에 의한 하이브리드 섬유
 - 종래의 Pro Viscose에 cotton·wool·silk 등 天然 複合 素材
 - color variation과 기능성을 높여, 더욱 vision up♣